

“심장 터질 듯 울리는 전통북의 매력 세계에 알려야”

윤종곤 날피북춤보존회장
대구 토속춤 제2대 예능보유자
“북은 우직한 경상도 기질과 비수”
해마다 해외 공연… 올해 동유럽

“심장이 터질 듯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전통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야죠.” 윤종곤(58) 대구 날피북춤보존회장은 우리나라 전통북의 세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날피북춤이 올해 동유럽 인들을 만나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6월 슬로바키아와 체코가 공연 대상지다. 두 나라에서 열리는 민속축제에 초대받아 간다. 날피북춤에서 날피는 글자 그대로 하늘을 날아온 산이다. 현재 달성토성(달성공원)이 있는 대구 서구 비산(飛山·날피)동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다. 비산농악과 함께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속춤이다. 어진 원님이 정사를 돌보다 순직하자 백성들이 추모하기 위해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원님의 혼령을 달래기 위해 북을 울리면서 춤춤에서 시작했다는 등의 설이 있다. 1953년 조직된 비산농악이 그 모태다. 날피북춤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83년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



대구 서구 비산(飛山·날피)동 일대 토속춤인 날피북춤을 전승하고 있는 윤종곤(맨 오른쪽) 날피북춤보존회장과 회원들이 날피북춤을 선보이고 있다. 날피북춤보존회 제공

지는 주민들끼리 마을에 큰일이 있거나 명절날 모여 흥겹게 춤을 추곤 했다. 이듬해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다. 1987년 날피북춤연구원이 조직됐다. 이때부터 날피북춤은 날개를 달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축하 행사에 대구 대표로 참석했다. 2013년 멕시코 사카데카스 전통민속공연, 201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민속축제 등 해마다 해외 초청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제1대 예능보유자 김수배씨에 이어, 윤

회장은 제2대 예능보유자다. 그는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과 날피북춤을 알리고 있다”며 “공연 후 기립박수나 오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찬사를 받을 때면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이 인정받는 모습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날피북춤은 그 뿌리가 비산농악이지만 북 하나만 사용하는 춤이다. 장고나 징은 단순히 반주를 위해 간간히 쓸 뿐이다. 문화재 지정상 편성은 15명(쇠1, 북12, 장고1, 징1)이지만 인원 제한이 없다. 한 명이 출

덥수룩한 머리·낮선 수염… 90일 간 ‘천막 동안거’ 끝낸 스님들

자승 스님 등 9명 상월선원서 수행 하루 한 끼만 먹고 목욕 금지

7일 경기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문을 열라.” 오후 1시30분쯤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과 도착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스님이 지시했다. 선원 총도감인 해일 스님과 선원 주지이자 서울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이 출입문 자물쇠를 풀자, 안에서 스님 한 명이 웃으며 일행을 반겼다.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 낮선 모습이었지만 전임 총무원장이자 선원 회주(叢主·크스님)인 자승 스님이였다. 다른 스님8명의 행색도 비슷했다. 지난해 11월 비닐하우스로 만든 상월선원에서 동안거(冬安居)에 들어간 자승 스님 등 아홉 스님이 90일간의 수행을 마치고 이날 천막 밖으로 나왔다. 스님들은 선원 안에 마련된 개인용 텐트 9동에 각자 자리를 잡고 참선과 취침을 반복했다. 하루 14시간씩 묵언 수행이 이뤄졌다. 수행 기간

에는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는 건 물론 목욕이나 샤워도 하지 않았다. 몸 관리는 세면이나 양치질 정도가 전부였다. 하루 한 끼 정도로 식사 횡수와 양도 줄였던 터라 부쩍 수척해지기까지 했다. 선원 내 난방 장치를 들이지 않아 일몰 뒤 스님들은 냉기와 싸워야 했다. 금세 반출되기는 했지만 한때 발열 조끼가 들어갈 뻔한 건 그런 고충 때문이었다. 이날 진제 스님에게 자승 스님은 “비닐하우스여서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다”고 내부를 소개했다. 일단 진제 스님 앞에서 동안거 해제를 알리는 삼배를 올린 9명의 스님은 출입문을 나온 뒤 마당에 선 채 사부대중(四部大衆·스님과 재가불자)에게도 삼배를 감사했다. 이를 전인5일 동안거 해제 베풀어 통해 “정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한 진제 스님은 “이제 문을 열고 매진하자”며 이날 동안거 마무리를 반겼다. 야외 ‘단체 노숙’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가 워낙 독특하고 전례가 드문 일어서서 기간 내내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인 일감 스님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요즘 여러 문제를 수행문화로 극복해 보려 상월선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안거한 전국 수행자 약 2,000명이 관심에서 밀려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정의원화불교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상월선원 동안거는 숲을 파괴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인근 주민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란스럽게 음악회를 열었다”며 “‘강남원장’(자승 스님)의 권력 확인 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 99개 선원에서 수행자 총 1,966명이 참여한 이번 동안거는 8일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해제된다. 안거는 동·하절기 3개월씩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일이다. 권경성 기자

수도, 수백 명이 함께할 수도 있다. 1992년 대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제천에선 480여 명이 날피북춤을 선보여 장관을 연출했다. 윤회장은 “북은 동작은 현란하지만 장단은 단순한 악기로, 우직한 경상도 기질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악기다”며 “북이 울리는 소리는 심장고동 소리와 유사해 치는 것만으로도 피를 끓게 하고, 기운을 넘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회장이 날피북춤과 인연을 맺은 건 1987년. 대구 달성군 하빈면 출생으로,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농악은 익숙했다. 어른들이 쉴 때 악기를 두드려다 흔히 난적도 많다. 군복무 후 제1대 예능보유자 김수배씨를 제 발로 찾아갔다. 그는 날피북춤에 미친 사나이다. 북춤을 위해 직업도 바꿨다. 연습시간을 내려고 잘 다녔던 액자공장도 그만뒀다. 1992년부터 7년간 시내버스 운전사를 하며 전수관으로 달려가 북채를 잡았다. 1999년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날피북춤 전승에 올인했다. 윤회장은 “전국에서 날피북춤을 배우려는 사람이 찾아오고, 정단원 40명에 배우려는 회원까지 60명이 넘는 조직이지만 모두 50대 이상이라 걱정”이라며 전승자 확보와 세계화에 주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희정 기자

2월 8일 土요일 1월 15일

해돋이 07:30 해질 18:03

달출 16:46 달집 06:42

2월 9일 日요일 1월 16일

해돋이 07:29 해질 18:04

달출 17:58 달집 07:32

전국 포근

오후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3~10도까지 오르겠다.

서울 -2/5 (20/0) 토요일 -5/5 (0/30) 일요일	춘천 -5/6 (20/0) -7/5 (0/30)	속초 -2/6 (0/0) -2/7 (20/20)	울릉 1/4 (20/60) -2/5 (30/30)	독도 4/6 (30/60) 0/4 (30/30)
인천 -1/4 (20/0) -4/4 (0/30)	수원 -3/5 (20/0) -6/6 (0/30)	청주 -1/6 (30/0) -4/6 (0/20)	강릉 0/7 (0/0) -2/9 (20/20)	포항 0/8 (0/0) -1/9 (0/10)
세종 -3/7 (30/0) -8/8 (0/20)	대전 -1/7 (30/0) -5/7 (0/20)	전주 -1/7 (60/0) -4/7 (20/20)	대구 0/7 (30/0) -3/8 (0/20)	울산 0/9 (0/0) -2/9 (0/0)
군산 0/6 (60/0) -4/6 (30/20)	광주 1/8 (30/10) -2/9 (30/20)	여수 1/8 (30/0) -1/8 (0/20)	창원 -1/8 (0/0) -2/8 (0/0)	부산 1/10 (0/0) 0/10 (0/0)
목포 1/6 (30/20) -1/7 (30/20)	제주 6/9 (30/20) 5/10 (20/0)	기온(°C)은 최저/최고, 강수량은 백 분율(%)로 표현/오전/오후		

관역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영동 제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릉 제주

생활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좋음, 낮을수록 반대

10(월)	1/8	1/12	3/13	3/13	3/9	7/13
11(화)	0/11	0/13	3/15	4/15	3/13	6/15

외출

토요일

50

빨래

토요일

80

운동

토요일

50

불조식

토요일

30

밀요일

일요일

70

밀요일

일요일

60

밀요일

일요일

50

밀요일

일요일

70

중도

“안철수가 달라졌다.”

지난달 19일 여의도 정치 한복판

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세간의 평가다. 우선 외모부터 달라졌다. 1년 5개월 동안 유럽과 미국에 머물며 마라톤을 열심히 한 덕에 바지 사이즈가 3인치나 줄었다고 한다.

발인도 세졌다. 복귀 당일부터 “보수원인재개발원”을 추진한 안철수가 “안철수”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도둑질 정권” (“실용적 중도”)로 호호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라며 거친 말도 서슴없이 쏟아냈다.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안 전 대표도 “쉽지 않을 것”을 잘 알고도 돌아왔다”고 했다. 그래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함”으로 완주하겠다는 그의 마음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서희 기자

송해교·서경덕, 브루클린 미술관에 한국어 안내서 기증

배우 송해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 한국어 안내서(사진)를 제작해 기증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달 중순부터 브루클린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티켓박스 앞에 꽂혀 있는 한국어 안내서를 무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가 글과 함께 게재한 안내서에는 브루클린 미술관에 대한 기본 소개부터 전

시각 구조, 주요 전시품 위치, 카페와 상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서 교수는 “브루클린 미술관의 ‘2020년 겨울 판’ 전시물 안내서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절별로 전시물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인사

◆법무부(승진) [교위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김동현 △대구교도소장 김승만 △부산구치소장 유태오 (전보) [교위공무원] △국방대 파견 류기현 △교정정책담당 유병철 △법무연구원 교정연구부장 이영희 △서울지방법교정청장 유승만 △대주지방법교정청장 이영식 △대전지방법교정청장 김찬수 △광주지방법교정청장 신영우 △서울구치소장 신봉태 △안원교도소장 김진구 △수원구치소장 정병현 △서울동부구치소장 정유철 (승진) [부이사관] △보안과장 하영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영원 △창원교도소장 김동환 △부산교도소장 김영식 △대구보호관찰소장 손세현 (전보) [부이사관] △교정기획과장 우희경 △전주교도소장 최병록 △의정부교도소장 오세홍 (승진) [서기관] △분류심사과 김진아 △광주교도소장 송무과장 최병태 △부산구치소 송무과장 장승구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허혁환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윤대하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김용국 △전주교도소 송무과장 고상길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박기주 △특정범죄자관리과(소년범죄예방팀 파견) 김병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허영금 △기획재정담당관실 고영식 △인권구조과 김경수 (전보) [서기관] △통일교육원 파견 서민 △분류심사과장 민낙기 △의료과장 김재술 △감사담당관실 강기천 △교정기획과 서호성 △서울지방법교정청 송무과장 김도형 △서울지방법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경선 △여주교도소장 오광운 △충청교도소장 정종선 △원주교도소장 장인원준 △강릉교도소장 김일환 △서울구치소 부소장 박동수 △서울구치소 송무과장 정원재 △안양교도소 부소장 김현우 △수원구치소 부소장 김영광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박상용 △서울동부구치소 송무과장 안영삼 △인천구치소 송무과장 박진성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남구 △서울남부구치소 송무과장 이효선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육근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최종수 △대구지방법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재열 △전주교도소장 도재덕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류동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최진규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박용운 △울산구치소장 한천용 △밀양구치소장 채란식 △상주교도소장

계 팀장씨 모친상=6일 오후6시50분 전주뉴타운장 래식장 발인 9일 오전9시 (063)284-4444
▲박종숙씨 별세 임용식 윤식(임윤식차의원의원) 원장 홍식(MBC C&I 대표) 강자 정석 해수 해영계 모친상·임해진(연합뉴스TV 기자)씨 조모상=7일 오전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8시 (02)2227-7580
▲김승자씨 별세 임영희 경단 석하 석란 재하씨 모친상·박용철(군인공제회 대외협력팀 차장) 김민석씨 장모상=7일 오전11시44분 문정제일병원 발인 9일 오전7시 (054)550-7840
▲박용오씨 별세 황기(동방 부사장) 홍기(서울신문 편집이사) 묘기씨 부친상 석현씨 조부상·고병배(정성산인사)씨 부친상=7일 오전8시50분 당진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7시 (041)355-7987
▲김말남씨 별세 박상용(아현산업정보고 교사) 상준(나비케미칼 대표) 상현(연합뉴스 총괄디스크팀 선임) 해경(전 총림중 교사 경희씨 모친상·김미란씨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씨 시모상·정상호씨 장모상=7일 오전시 부산의료원 발인 9일 오전7시 (051)607-2652
▲김필이씨 별세 류우익(전 통일부 장관) 승우 영우씨 모친상·정혜도(이화여자대학교)씨 장모상=7일 오전4시50분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6시30분 (02)2072-2016
▲도상근씨 별세 덕희(한국해안대 총장)씨 부친상=7일 오전5시 동아대병원 발인 10일 오전9시 (051)256-7017

부고

▲이현민씨 별세 진선영(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씨 장인상=7일 오전7시37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7시 (02)3010-2000
▲성영애씨 별세 한인종 길종(전북 진안경찰서 강력

41